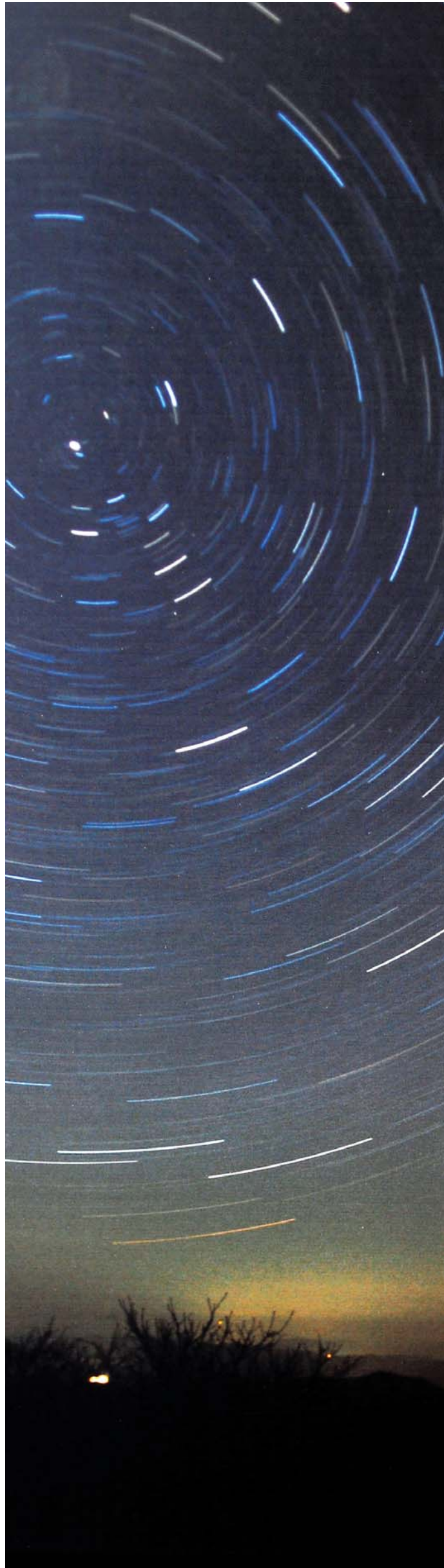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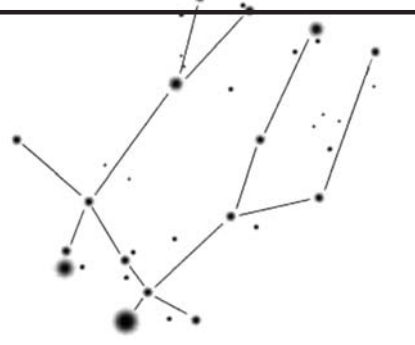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

별빛이 선사하는 '여름 밤의 꿈'



‘원시별의 탄생과 진화’ 14~16일 천문과학관 천문학 강의·누워서 별보기·스타파티 등 운영 별빛마켓·캠핑장 등 방문객 위한 편의시설 개선

경북 영천은 ‘별의 도시’다. 영천의 진산인 해발 1124m의 보현산 정상은 전국에서도 별이 잘 보이는 장소로 손꼽힌다. 만원 짜리 지폐 뒷면에 인쇄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8m 광학망원경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 보현산천문대가 영천에 들어선 것도 이 때문이다. 영천시는 이를 활용해 보현산 일원에 남녀노소 누구나 특별한 추억을 안겨줄 ‘별빛테마관광지’를 조성했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영천시는 2004년 화북면 정각리에 보현산천문과학관을 건립해 보현산별빛축제를 개최하면서 별을 주제로 한 테마관광지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보현산별빛축제는 ‘원시별의 탄생과 진화’란 주제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천문과학관 일원에서 열린다. 그동안 가을에 열리던 축제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천문과학관 인근의 별빛테마마을과 캠핑장을 찾는 다양한 여행객들에게 축제 참여의 재미와 여름밤 추억을 함께 선사한다.

지난 4년간 경북도의 유망축제에 머물러있던 별빛축제는 올해 우수축제로 격상돼 아이들에게는 천문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전시·체험행사를 풍성하게 구성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꾀했다.

축제 내용도 기존 한 개에 그쳤던 주제관을 두 개로 늘려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더욱 알차게 구성했다. 축제 주제에 맞춰 별의 일생을 보고 배우는 메인 주제관을 중심으로 천문·우주·과학의 원리를 체험기구와 놀이를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을 함께 선보인다.

축제 프로그램에도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동화 ‘어린왕자’를 집목해 ‘어린 왕자와 함께 떠나는 축제장 투어’ 등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새로운 재미를 안겨주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에 평소 민간 개방이 금지됐던 보현산천문대도 개방한다. 영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받아 하루 4회 80명씩, 3일간 240명의 관람객이 보현산천문대에서 1.8m 광학망원경으로 수많은 별들을 관찰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화북면 정각리 별빛마을에서 보현산천문대를 오르는 9.3km의 콘크리트 도로구간은 민요에 나오는 아리랑 고개보다 더 꼬불꼬불한 포장 산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하늘을 접할 수 있는 ‘하늘길’로 보현산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5개 탐방로가 만들어져 있다.

보현산천문과학관에서 반짝이는 별을 마음속에 새겼다면, 이후에는 우주에서 겪을 수 있는 짜릿한 체험이 보현산천문전시체험관에서 기다린다. 실제 로켓이 발사하는 진동과 우주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보현호와 가상현실(VR)을 통해 우주공간을 운영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아울러 특화프로그램인 천문학 강의, 누워서 별보기, 스타파티 프로그램 등도 새 단장을 통해 관람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별빛테마마을

영천시는 매년 아쉬운 점으로 남았던 먹거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프리마켓 단체와 연계해 ‘별빛마켓’을 운영한다. 또 축제 행사장 주변의 식당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푸드트럭을 작년보다 2배로 늘리고, 별빛마을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식당을 공동 운영하는 등 방문객들의 불편 및 편의 개선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행사장 인근에 숙박명소도 많다. 별빛테마마을은 펜션 4동과 옛 화북 정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본관동 6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펜션동은 하늘을 향해 20도 정도 기울어진 유리로 만들어져 숙소 안에서 누워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 보현산천문과학관 뒤편에 1만5000㎡ 부지에 조성된 별빛야영장은 자동차 야영장 30면과 글램핑장 7동이 있으며,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낭만적인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올해 별빛축제는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며 “축제장에 많이 오셔서 더 진화된 별빛축제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신문=강선일 기자 ksi@imaeil.com



보현산천문과학관 뒤편에 조성된 별빛야영장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감상하며 낭만을 즐길 수 있다. <영천시 제공>

영천의 명소들



한의마을서 사상체질 진단받고 전투호국기념관서 호국 의미도 배워요

▲동의참누리원 영천한의마을=한방유통의 중심지 영천의 한방테마 관광지로 지난 3월 개장했다. 유의기념관 및 한방테마거리 등 전시·체험시설과 한의원을 갖추고 있어 자신의 사상체질을 진단해 체질에 맞는 한약과 약선음식을 추천받을 수 있다. 또 8개 객실을 갖춘 한옥체험형 숙박시설은 고즈넉한 한옥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으며 한의연못, 약초재배원, 한의정원, 스카이워크 전망대, 상징조형물 등 특색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한의마을 곳곳에 자리잡은 곰·토끼·거북이 등 동물 조형물은 방문객들에게 친근함을 더해 준다.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방 비누 만들기과 족욕체험이 있다. 한방 비누 만들기는 자신의 체질에 맞는 비누 3개를 직접 만들어 가져갈 수 있고, 족욕체험은 지친 심신을 푸는데 안성맞춤이다. 편의시설로 한방음식과 한방차를 즐길 수 있는 약선음식관, 카페 등이 있다.

▲영천댐공원 및 임고강변공원=2007년 3월 개장한 임고강변공원과 2015년 개장한 영천댐공원은 다목적광장, 야영장, 운동시설, 유아놀이터, 분수, 폭포시설 등이 조성돼 매년 5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여름철 캠핑장 및 물놀이장으로 유명하다. 특히 임고강변공원은 여름철 무더위와 전장을 치르는 관광객들을 위해 작년 7월 수심 70cm, 면적 900㎡ 규모의 대형 물놀이장을 신축 개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늘막인 통골텐트 15동과 간이샤워실 등도 설치돼 단체관광객 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다.

▲보현산땀 뺀이아=수려한 보현산 숲을 산악 모노레일로 이동해 하늘을 나는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다.

1.4km의 길이를 자랑하며 2개 라인으로 설치돼 2명이 동시에 하강할 수 있다. 최고 하강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는 구간

도 있어 내려갈 때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 있다. 관람객들은 쥘와이어를 타고 보현산땀을 가로지르며 산과 호수 모두를 발아래 두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품는 장관을 체험하게 된다. 모노레일을 타고 쥘와이어까지 올라가는 보현산 자락의 0.75km 구간은 화려한 산세와 땀의 수려한 경관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올해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포레스트캠프 및 숲속의 집 3동을 추가 조성하고, 6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이용예약을 받고 있다. 포레스트캠프는 출렁다리, 인공암벽, 꼬마 기차와 터널, 동물 조형물 등이 조성돼 자연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다.

숲속의 집 3동은 포레스트캠프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탁 트인 전망과 고급화된 내부시설로 다른 휴양림과 차별화된 고품격 자연휴양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 등 25개 객실을 비롯해 다목적구장, 세미나실, 수변관찰데크, 물놀이장, 대형주차장 등을 갖춰 단체행사장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및 영천전투호국기념관=6·25한국전쟁 당시 역전의 신호탄이 된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후대에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건립됐다.

전투메모리얼파크(체험관)는 도심내 영천전투전망타워에서 전쟁체험, 야외서바이벌 체험을 통해 재미있는 안보교육, 에듀테인먼트(Eduainment)를 추구한다. 전후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호국의 의미를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되새겨 볼 수 있는 시설이다. 국군훈련장, 시가전, 고지전과 같은 서바이벌 체험과 함께 전망타워에서 호국안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로 나라사랑의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전투호국기념관(추모관)은 고경면에 위치한 국립영천호국원과 인접해 있으며 2009년 8월 낙동강 호국평화벨트조성사업으로 선정돼 2013년 12월 착공 후 최근 준공됐다.

9월 본개관을 앞두고 이달 13일부터 임시운영에 들어가 전시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실제 전시관 중 제1전시실은 영천전투를 재현한 공간이며, 제2전시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이다. 한국전쟁 당시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 등이 전시돼 있으며 야외에는 영원의 마당, 무궁화동산 등 전시공간이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 영천에는 가을에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한약축제인 ‘영천한약축제’를 비롯 가래실 문화마을, 최무선과학관, 임고서원, 치산캠핑장, 노계문화관 등 다양한 축제와 투어를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곳곳에 있다.

전국 최대 주산지 중 하나인 영천포도를 사용한 영천와인과 잼을 비롯 영천뽕배기, 영천별빛향우 등 먹거리도 풍부하다. /매일신문=강선일 기자 ksi@imaeil.com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내 야외 서바이벌 체험장에서 시가전을 준비하는 청소년들.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충북신문 부산일보 吉林日報 제주신문 新발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신양파크호텔

www.shinyangparkhotel.com